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류산업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가. 대외경제여건 변화



온 기 운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장〉

90년대 중반 이후 확장세를 지속하여 1996년에 3%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세계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어 세계전체가 둔화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 거의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극심한 내수위축과 수입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수입급감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원유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여파로 동구, 중남미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째 장기호황을 누려왔던 미국경제도 수출둔화, 주가약세, 기업경영 악화 등 후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서유럽국가들의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기 위축 추세속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의 수입

■ 목 차 ■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2. 국내경제 전망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수요가 크게 줄고, 그 결과 국가들간의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가 세계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통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여파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져 왔고 홍콩 달러화 페그 환율 시스템이 크게 동요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셋째, 미국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강세를 지속하던 달러화 가치가 8월 하순부터 약세로 돌아서고 대신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아시아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경우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 완화와 홍콩 금융시장 불안 진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적극적인 내수확대, 그리고 달러고-엔저 현상을 시정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의 자본편중 현상을 시정하여 국제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회복에 도움을 주어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내경제 여건 변화

IMF 자금지원 직후 극히 불안정했던 한국경제는 금융지표의 경우 여타 외환위기 경험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되찾았으나, 실물경제의 지표는 악화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년 1월을 고비로 절상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오히려 지나친 절상을 우려하는 견해마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환율 안정에 힘입어 금리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

로까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엔화 강세-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금리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질소득 감소와 실업증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설비투자도 큰폭으로 축소되고 있다. 생산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사상 최저 수준인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위기 직후 한동안 국내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아시아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수부진 심화에다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산업활동의 기반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주요 업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부진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최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금융도 부진한 실정이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지속, 즉, 자산디플레 현상의 심화 가능성이다. 이는 민간의 구매력을 감퇴시켜 소비위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감소를 통하여 부도나 도산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금융부문에서는 부실채권 증가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고 신용경색을 심화시키며, 이는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부도와 도산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자금융의 대폭 확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확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공급 및 재정지출의 확대, 부동산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인하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아울러 은행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9월 말까지 1차 마무리함과 아울러, 기업구조조정도 대기업들의 사업조정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정부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내수진작책과 더불어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 국내경제 전망

가. 성 장

내년에는 소폭의 플러스로 반전

금년 상반기 실질 GDP성장률은 작년 상반기의 6.2%보다 크게 낮은 -5.3%를 기록, 성장을 추계를 시작한 53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20.9% 성장하고, 수입이 23.7%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처럼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민간소비가 11.7%, 설비투자가 46.7%나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 위축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 속에서 임금하락이 겹쳐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중 설비투자는 신용경색과 환율불안 등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장투자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46.7%나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10.7%나 감소하였다.

특히 금년 상반기 성장률에서 두드러진 현

상은 재고감소가 17조원을 상회, 성장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금수출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내수부진으로 인해 판매된 것 이상으로 출하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대외부문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20.9%나 급증했는데, 이는 내수 위축에 따라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반면 상품과 용역의 수입은 국내 소득감소와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23.7%나 줄어들었다.

금년 하반기에도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수출마저 부진을 보임에 따라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은 -7.8%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및 통화공급 확대로 감소 폭이 상반기에 비해 작아질 것이나, 민간소비증가율은 내수위축이 심화되어 -16.5%로 하락할 것이다. 설비투자도 구조조정 노력으로 기업들이 투자활동에 본격 나서지 못할 것이고, 기계수주 위축세 심화 등으로 -52.5%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전망이다. 대외부문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경기침체가 러시아를 거쳐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나, 수입은 작년 하반기 부진에 따른 상대적 반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금리인하, 통화확대, 조세인하 등의 확대 재정·금융정책으로 인해 1.4%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기부양조치로 인해, 민간소비가 소폭(0.9%)이나마 회복세로 반전되고, 정부지출도 1.1% 상승함에 따라 최종소비지출은 0.9%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기업

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 크게 위축된 설비투자가 1.9%의 상승세로 반전되고, 금년에 비해 건설투자 감소 폭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총고정자본형성도 금년의 28.3% 감소에서 0.4%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에는 내수부문에서 경기회복 요인이 강한 편이나, 대외부문은 경기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 위축세 지속으로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소폭의 플러스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나. 소비

내년에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으로 증가세로 반전

올 상반기 국내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종소비지출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민간소비가 급격한 실업증가와 임금삭감, 고금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한데다, 정부소비도 세수부족 등으로 6.2%나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 감소한데 비해, 소비지출은 13.2%나 감소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무려 19.7%나 감소해 디플레이션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금년 하반기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더욱 낮아진 -14.9%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금년 전체의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13.0%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상반기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과 고금리의 지속 등에 따라 -16.5%를 기록할 것이나, 정부소비지출 증가율은 정

부의 재정지출 확대, 실업급여 증대 등으로 상반기보다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0.9%로 금년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물가안정과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완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의 효과 가시화, 전년의 급속한 소비위축에 따른 상대적 반등으로 0.9% 증가할 것이고, 정부소비는 대량 실업방지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1.1% 증가할 전망이다.

다. 투자

설비투자 회복, 건설투자는 위축 지속

작년 1/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내수 부진의 큰 원인이 되었던 설비투자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구조조정과 자금난 심화로 인한 기업의 도산증대, 그리고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위축되어 46.7%의 감소율을 보였다. 민간소비 위축과 설비과잉 등으로 신규투자가 급격한 위축을 보이고 있는 대신 기업들은 주로 보수·유지나 합리화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투자는 작년에 소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고금리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급증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10.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도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마저 높아 투자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하반기 52.5%의 감소를, 건설투자는 하반기 16.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금년의 대폭적인 감소에 대한 반등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신용경색의 완화 등으로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겠으나 증

가율은 미미하여 1.9%에 머물 전망이다. 건설 투자는 정부의 SOC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라. 수출입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감소세 지속

지난 5월 이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극심한 국내경기 침체로 수입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은 1/4분기에는 금 수출로 인해 작년동기 대비 8.5%가 증가하는

비교적 순조로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5월 이후 금 수출이 중단된데다,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수출은 3.0% 증가에 머물렀다.

하반기 들어 수출감소세는 더욱 심화되어, 수출이 7월과 8월 연속 두자리 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수출은 87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나 감소하여, 수출기반이 완전 붕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수출감소세는 연말까지 지속되어 하반기에는 수출이 작년동기 대비 8.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경 제 전 망

단위 : 전년동기비, %

| | 1997 | 1998 | | 1999 | |
|------------------|-------------------|-------------------|-------------------|-------------------|-------------------|
| | | 상 반 기 | 하 반 기 | | |
| 실질 GDP 성장률 | 5.5 | -5.3 | -7.8 | -6.6 | 2.1 |
| 최종소비지출 (민간소비) | 3.5 3.1 | -11.0 -11.7 | -14.9 -16.5 | -13.0 -14.2 | 0.9 0.9 |
| 총자본형성 (설비투자) | -12.8 -11.3 | -59.9 -46.7 | -35.5 -52.5 | -47.4 -49.5 | 21.7 1.9 |
| (건설투자) | 2.7 | -10.7 | -16.4 | -13.8 | -1.3 |
| 재화와 용역의 수출 | 23.6 | 20.9 | 15.4 | 17.9 | 0.8 |
| 재화와 용역의 수입 | 3.8 | -23.7 | -9.8 | -16.7 | 9.2 |
| 수 출 (증 가 율) | 136,164 (5.0) | 67,216 (3.0) | 65,167 (-8.1) | 132,383 (-2.8) | 134,369 (1.5) |
| 수 입 (증 가 율) | 144,416 (-3.8) | 47,557 (-36.1) | 48,460 (-31.0) | 96,017 (-33.6) | 112,819 (17.5) |
| 수출입차 | -8,452 | 19,659 | 16,707 | 36,366 | 21,550 |
| 상품수지 | -3,179 | 21,308 | 17,607 | 38,915 | 23,316 |
| 경상수지 | -8,167 | 22,383 | 16,907 | 39,290 | 19,316 |
| 물가 | | | | | |
|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 8.6 | 7.0 | 7.8 | 2.0 |
| 생산자물가상승률 | 3.9 | 14.2 | 12.0 | 13.1 | 1.6 |

자료 : 산업연구원 9월 전망치

는데, 그 결과 올해 수출은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2.8%)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년 하반기에도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최근의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환율면에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9월 들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일본경제의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이 산적되어 있어 엔화약세 기조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홍수피해를 입은 중국과 상반기 중 호조를 보였던 미국의 성장 둔화 조짐도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은 1%대의 낮은 신장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의 둔화로 세계경제의 침체 양상이 지속될 것인데다, 러시아 모라토리움 이후 확산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동구권 및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경제의 둔화로 일본 엔화는 금년에 비해 소폭 절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산활동 및 소비부진으로 수입 급감

한편, 상반기 중 36.1%의 감소율을 보였던 수입은 하반기에도 30%를 넘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3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입이 연중 내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내수침체로 설비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실업증가 등으로 소비도 계속 위축됨에 따라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계속 감소할 것인데다, 아시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의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수입이 17%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수입이 33%나 감소(금액으로는 484억 달러)한 데 따른 수치상의 반등이 가장 큰 요인이나, 국내경기가 올해의 극심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1%대의 성장을 보이는 등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미루었던 투자가 내년에는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자본재 수입이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무역수지는 상반기 중 197억 달러에 달하였다. 하반기에도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이보다는 수입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보다 소폭 줄어든 167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는 전례없이 큰 3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수입의 격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흑자규모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마저 급감하고 있고, 자본재 수입도 40% 이상 줄어들어 따라 향후 수출 및 성장잠재력 저하마저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도 수출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나 수입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2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내년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1997년에 비해 여전히 3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마. 금 리

내년 중반 이후 상승세로 반전

IMF 사태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었던 시장 실세금리가 금년 3월부터 원화 가치의 상승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6월 중반부터는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작년 말 28.98%까지 상승하였던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이 금년 3월 초에 20% 이하로, 그리고 7월 초에 15% 이하로 하락한 후 8월 말 현재 11.9%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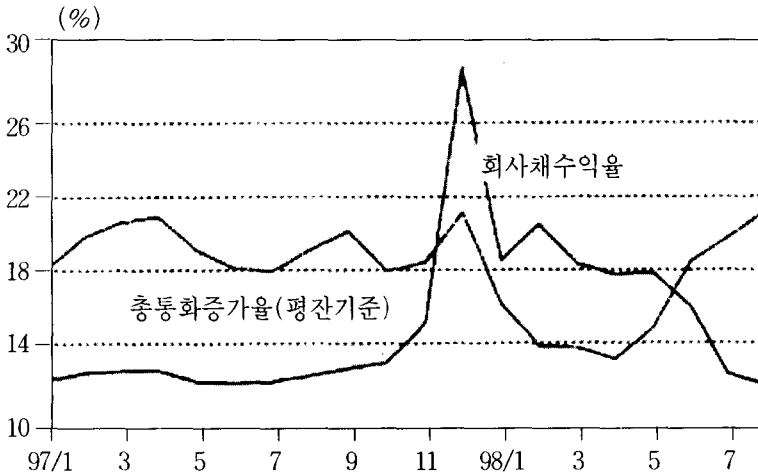
이처럼 6월 중반부터 시장실세금리의 하락세가 빨라진 것은 환율이 하향 안정되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리하락을 강력히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28일 IMF와 통화량 확대를 통해 금리하락을 유도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야만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존의 조건부 금리인하 방침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다 금융기관들이 여유자금을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

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시장실세금리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실세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신속적인 통화정책 등을 통해 금리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부터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크게 늘릴 계획으로 있어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반 이후에는 시장실세금리가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설비투자를 미루어왔던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조달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년 자금운용에 있어서 채권투자 비중을 높였던 금융기관들이 내년에는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채권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은 내년 말에 12.5%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표 추이



바. 원/달러 환율

내년에도 하향안정세 지속

외환위기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4월 들어 1,3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7월 하순 한때는 1,180원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환율안정을 위한 한국정부와 IMF간의 외환시장 개입가능성 시사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간접개입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 7월말에는 1,230원을 기록하였고, 8월 중순 한 때는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1,350원선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원화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 지속,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인해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환율 절상압력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둔화를 배경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경우 원화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하요인도 존재하여 이 요인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원화환율이 절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도산의 확대, 금융시스템 및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등 불안요인이 원화절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홍콩, 중국 등 개도국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재는 절상요인과 절하요인이 공존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개도국 외환시장 불안정에 따른 절하요인이 우세할 것이나, 국제적 합의도출과 공조체제 구축으로 외환시장 불안정

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원화가치는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상반기중 1,504원을 나타낸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00~1,350원선을 움직일 것이며, 개도국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어감에 따라 연말에는 1,30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와 환율이 적정수준으로 수렴해 감에 따라 절상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율은 대체로 1,250~1,3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100엔 환율은 작년 평균 793원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평균 1,139원선으로 상승하였으나, 9월 초 현재는 원화절상으로 980원선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엔화 및 원화가치 향방에 따라 원/100엔 환율은 달라질 것이나 하반기에는 950~1,000원선을 나타낼 것이며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사. 물 가

환율안정 및 소비위축으로 안정세 지속

작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불안으로 야기된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수입품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여, 올 초에는 생산자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을 가중시켰다. 특히 올 2월의 경우 전년동월비로 생산자물가는 17.7% 포인트, 소비자물가는 8.9% 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률은 지난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원화환율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입물가의 급등세가 점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14.2% 상승한 생산자물가는 원화환율 안정과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의 하락 등으로 하반기에는 1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상반기 8.6%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는 7% 상승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안정,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억제 등이 소비자물가의 안정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생산자물가는 환율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여 2%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물가의 경우도 소비위축과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따른 가격할인점 활성화 등으로 1.6~2.0%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가. 주류 내수 크게 감소

IMF자금지원 이후 심화되는 경기침체로 주류에 대한 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실질임금감소, 실업증가, 자산가치 하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에 대한 내수부진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년 2/4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177만 8,000원으로 작년 2/4분기에 비해 12.5% 감소했다. 그런데 실질소비지출은 104만원으로 작년 2/4분기에 비해 19.7%나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가계소비지출이 실질소득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계의 흑자는 더욱 증가하여 금년 2/4분기에 62만 9,000원을 기록했다.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 즉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2/4분기 71.2%에서 금년 2/4분기 66.1%로 5.1%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동향은 소

비자들의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전반적인 소비위축속에 주류의 소비수요도 크게 줄어 금년 상반기중 맥주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물량기준으로 10% 감소했고, 소주는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내 주류업체들의 경영실적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하이트맥주의 경우 지난 2월 맥주가격의 인상(병맥주 8.5%, 캔맥주 14%)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판매량이 4.8% 줄었다. 경상이익도 매출부진과 금융비용 증가로 33.9% 감소한 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흥천공장 건설로 차입금이 8.6% 늘어난데다 금리상승으로 금융비용이 12.1%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OB맥주의 경우도 판매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 9월 1일부터 두산그룹이 기존의 맥주사업 부문을 벨기에의 인터브루사와 합작한 상장회사로 넘기면서 차입금도 합작사로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해양조의 경우 금년들어 상반기중 판매관리비와 광고비 절감으로 순이익이 62.6%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의 상태에 있는 진로의 경우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아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광고비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소주매출이 호전되고 있어 기업경영이 호전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나. 주류 수입 크게 감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주류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수입은 1990년에 7,000만 달러를 다소 넘는 수준이었으나, 작년에는 이의 4배에 해당하는 2억 8,0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작년 12월부터 주류수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금년들어 7월까지 주류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1%나 감소한 9,086만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주류 종류별로 보면 작년에 연간 518만 달러를 기록했던 맥주수입이 금년 8월까지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나 감소한 37만 8,000달러를 기록했으며, 포도주 수입은 작년 연간 2,281만 달러에서 금년 8월까지 377만 달러(전년 동기비 -74.5%)로 대폭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주류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스키의 경우 작년 1억 9,055억 달러에서 금년들어 7월까지 5,870만달러(전년동기비 -48.7%)로 감소했다.

이러한 주류 수입감소율은 금년 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입감소율 37.2%보다 큰 수준이다. 주류수입의 감소율이 전체 수입의 감소율보다 큰 것은 IMF체제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불요불급한 소비는 가급적 억제하려는 소비패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금년 8월 24일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제조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12개 기존업체 외에

신규업체가 주정 제조업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 제도도 오는 2000년중에 폐지된다. 또 2000년부터 탁주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허용되고 공급구역 제한도 없어진다. 그리고 금년말부터 농민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특산주를 슈퍼나 연쇄점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안동주 등 민속주와 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전통주 도매면허제도도 도입되게 된다.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격제한제도도 금년말까지 개선하여 알코올 도수 6도 이상으로 규정된 탁주의 경우 3도 정도의 저알코올 탁주와 인삼, 잣 등의 식물약재를 첨가한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과실주인 리큐어 원액의 제조 및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류판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신고제를 금년말까지 폐지하여 판매업체간 가격경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주류업계는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체들은 규제완화 시점이 경기가 불황국면으로 치달고 있어 주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업체의 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주류업체가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정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한 것이다. 업체는 주류도매업자의 양산이 기존업체의 도산과 무

주류 수입실적

단위:천달러, %

| | 1990 | 1992 | 1994 | 1996 | 1997 | 1998. 1~7월 |
|-------|--------------|-------------|---------------|---------------|--------------|---------------|
| 주류 전체 | 70,406(16.5) | 74,196(6.0) | 126,935(70.9) | 261,447(36.5) | 279,113(6.8) | 90,859(-47.1) |
| 맥 주 | 1,119(-23.9) | 365(51.9) | 1,138(-31.5) | 3,379(32.5) | 5,181(53.3) | 378(-87.0) |
| 포도주 | 4,888(56.9) | 5,643(65.4) | 8,103(38.4) | 16,406(20.4) | 22,809(39.0) | 3,769(-74.5) |
| 위스키 | 34,438(26.9) | 42,041(1.7) | 75,991(68.4) | 186,919(53.6) | 190,546(1.9) | 58,695(-48.7) |

주: ()속의 수치는 전기비 증가

자료거래를 성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값싼 주정원료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 국산 농산물의 판로제한과 공급과잉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의 공급과잉 현상은 결국 관련업계의 부도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업체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주류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중시되고 그 결과 업계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금년 9월부터 주정산

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국내외업체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퇴출되는 것이 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규제완화를 수용하면서 각자 품질개선과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진하여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IMF체제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류업체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衿名, 不若逃名趣. 練事, 何如省事間.

이름을 자랑함은 명예에서 도망치는 취미만 못하다. 일에 익숙함이 어찌 일을 덜어 한가함만 하다.

- 菜根譚 중에서 -